

〈第七回 會員研究發表會 發表論文〉

農業의 相對的 衰退의 理論

——大川一司理論의 批判的 考察——

朱 宗 桓

(東國大學校 · 副教授)

차 례

- I 有効需要의 長期的 分化의 法則과 近代
農業經濟學
- II 大川理論과 有効需要의 原理
- III 大川理論과 收穫遞減의 法則
- IV 大川理論과 過少消費說

- V 大川理論의 批判的 修正
- VI 需要面分析과 生産面分析
- VII 農業의 自然的·技術的 條件과 Capital
Rationing
- VIII 土地所有와 農業資本
- IX 農民層의 分解과 獨占資本

I. 有効需要의 長期的 分化의 法則과 近代農業經濟學

近者 특히 第2次世界大戰以後 經濟發展의 問題가 經濟學의 中心課題로 登場함에 따라 農業經濟學의 分野에서도 經濟發展과 農業과의 關係를 近代經濟學의 分析方法을 利用하여 研究하려는 傾向이 學界를 휩쓸고 있다. T.W. Schultz¹⁾ E. M. Ojala²⁾ 등에 의해서 開拓된 農業經濟學의 이 새로운 研究方法은 사람에 따라 여러가지의 뉴앙스의 差異가 있으나 그들이 모두 經濟發展에 대하여 農業이 어떻게 寄與하고 있으며 꺼꾸로 經濟發展이 農業成長에 어떠한 影響을 끼쳐 주고 있는가를 그 主要課題로 삼고 있다는 點에 있어서는 거의 同一한 方向을 取하고 있는 듯 하다.

T.W. Schultz는 이러한 새로운 研究方法을 提唱하면서 農業內部的 문제 즉 within problem을 中心으로 하여 發展되어 온 農業經濟學은 非農業과 農業과의 相互關係의 문제 즉 between problem를 中心으로 하는 그것으로 脫皮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³⁾ 그리고 그는 非農業과 農業을 相互密接하게 연결하는 關鍵을 農產物의 需要와 供給의 相互關係에 求하고 農業成長의 세가지 셋트를 區別하였다. 그에 의하면 農產物에 대한 需要의 成長率을 D, 供給의 成長率을 S라고 한다면 셋트 I은 $D=S$ 셋트 II는 $D>S$ 셋트 III은 $D<S$ 로 表示되며 이러한 세가지 셋트를 規定하는 基準은 生産物에 대한 需給均衡의 有無 相對價格의 變動의 有無 生産要因移動(factor transfer)의 有無等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셋트 I. $D=S$ 에서는 그다지 重大한 問題가 나타나지 않으나 셋트 II. $D>S$ 에서는 非農業部門으로부터 農業部門으로 資源의 移動이 必要한 이른바 食糧問題(food problem)를 發生케 하며, 셋트 III. $D<S$ 에서는 農業部門에서 非農業部門으로 資源을 移動시켜야 하는 이른바 農業問題(agricultural problem)를 낳게 한다고 말하면서 셋트 II는 Ricardo, Malthus, J.S. Mill 등에 의해서 형성된 古典學派의 모델이고 셋트 III은 현재 미국이 當面하고 있는 현실을 나타내는 모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D가 S에 거의 恒久的으로 미치지 못한다는 點에 農業部門의 成長率이 非農業部門의 成長率에 비해서 相對的으로 衰退하는 根源이 있다고 보면서 D는 所得彈力性 人口增加率 및 ...人當所得增加率等에 의해서 左右되고 S는 農業從事人口의 增加率과 農業從事人口 一人當生産性的

註 1) T. W. Schultz, Agriculture in An Unstable Economy, 1945 : Economic Organization of Agriculture, 1953.

2) E. N. Ojala, Agriculture and Economic Development, 1948.

增加率에 의해서 左右된다고 하였다.

대체로 이상과 같은 *T. W. Schultz*의 理論體系는 그의 理論이 基本的으로는 有効需要의 長期的 分化에 관한 統計的 法則性에 立脚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그것은 學說史的으로 볼 때 *Colin Clark*의 經濟成長理論의 農業部門에 대한 應用에 의해서 農業經濟學의 새로운 分野를 開拓한 것이라는 것을 留意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一般的으로 *Colin Clark*의 經濟成長理論의 基盤인 第1次, 第2次 第3次産業이라는 産業分類 그 自體는 有効需要의 長期的 分化의 法則性에 의해서 定立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은 것 같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Colin Clark* 自身이 그의 “Conditions of Economic Progress” 3rd에서 이 事實을 明白히 하고 있는 것이다.

예당초 第1次産業 第2次産業 第3次産業으로 産業을 分類하는 方式은 Newzealand의 *Allen G. B. Fisher*의 “The Clash of Progress and Security, 1935”에서 처음으로 採擇된 것이었다고 한다.¹⁾ 그런데 그는 후에 이 産業分類方式의 有用性을 다시금 確認하고 “The Economic Record 1939”에 收錄된 論文 가운데서 *Fisher*는 이 産業分類가 各産業의 生産物의 所得彈力性의 値를 基準으로 하는 分類임을 明白히 하고 있다. 즉 그는 第1次産業은 그 生産物이 0.5以下の 所得彈力性을 가지는 産業이며, 第2次産業은 所得彈力性이 1과 0.5사이인 産業이며 第3次産業은 所得彈力性이 1以上の 産業이라고 定義하였던 것이다.²⁾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Colin Clark*에 의해서 크게 發展된 最近의 經濟成長理論이 다른 한편 有効需要의 長期的 分化의 法則, 그 中에서도 특히 生産物에 대한 需要의 所得彈力性概念을 밑거름으로 하여 發展되어 왔다는 것을 確認할 수 있는데 그것이 또한 *T. W. Schultz*의 理論의 根源이 되었다는 것은 *Schultz*의 다음과 같은 말로서도 明白하다. 즉 *Schultz*는 “第1次 第2次 第3次의 概念이 經濟分析에 있어서 最高의 有用性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그것은 各産業이 生産하는 生産物의 所得彈力性에 立脚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農業에 相對的 衰退의 現象을 *Colin Clark*의 産業分類方式에 의해서 分析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現象의 根源을 農産物에 대한 需要의 所得彈力性이 相對的으로 낮다는 點에 求하고 있는 것이다.³⁾

그런데 *Schultz*의 理論은 오늘날 美國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有力한 追從者를 가지게 됨으로써 農業經濟學界에 있어서 確固한 市民權을 獲得하기에 이르고 있다. 美國에 있어서는 *E. O. Heady, S. E. Johnson* 등이 *Schultz*의 뒤를 따르고 있으며 英國에서는 *E. H. Whetham*을 비롯한 여러 學者가 있고 日本에서는 大川一司教授를 筆頭로 하는 數 많은 追從者가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農業經濟學界에서는 이들을 *Schultz*學派 (*Schultzian School*)라고 부르기에 이르렀다. 특히 日本의 경우에는 大川一司教授의 劃期的인 二部作 「農業의 動態分析, 1954」, 「農業의 經濟分析, 1955年」이 日本의 農學經濟學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켜 世稱 大川學派가 크게 擡頭하고 있으며 最近에는 이것이 우리나라 學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 같다.

大川教授의 農業의 相對的 衰退의 理論은 *Schultz*의 理論을 하나의 簡潔한 理論 model로써 要約하고 있다는 點에 그 特色이 있다. 그러므로 大川教授의 農業의 相對的 衰退에 관한 理論을 檢討한다면 *Schultz*理論의 根本性格을 아울러 밝혀 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므

1) C. Clark, The Conditions of Economic Progress, 3 ed. p. 491

2) T. W. Schultz, Agriculture in An Unstable Economy, Chapter V; 吉武昌男譯, p. 122

3) T. W. Schultz, 上掲書 上掲日語譯 p. 123

로 以下에서 우리가 大川教授의 理論 model의 構造를 批判的으로 檢討하는 것은 바로 Schultz學派의 理論構造를 檢討하는 것과 같은 意味內容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는 Schultz理論의 立脚點이라고 말할 수 있는 Colin Clark의 産業分類方式을 批判的으로 檢討하기 위한 하나의 通路를 提示하는 것과도 無關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 理由는 以下の 行論에서 밝혀 질 것이다.

II. 大川理論과 有効需要의 原理

Colin Clark의 劃期的인 勞作 “Conditions of Economic Progress”가 나온 以來 産業을 第1次産業, 第2次産業, 第3次産業으로 分類하는 方式은 오늘 날 國際的으로도 널리 採擇되고 있다. 大川教授는 우선 이와 같은 産業分類方式에 依據하여 農業이 衰退産業이라는 것을 確認한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이 産業分類에서는 農業은 林業・水産業과 함께 第1次産業에 屬하며 鑛業・建設業・製造業等은 第2次産業에 商業, 交通業, 서비스業等은 第3次産業으로 分類된다. 이 産業分類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有効需要의 長期的 分化의 法則에 立脚하는 것이며 이것은 ··K. Marx (1818-83)가 Das Kapital 第2卷 第3編에서 展開한 再生産論에서 産業部門을 生産財部門과 消費財部門으로 分類한 方式과는 對照的인 位置에 있다. 왜냐하면 K. Marx의 2部門分割은 Colin Clark의 産業分類方式이 需要의 觀點에서 産業을 分類한 것임에 대하여 生産의 觀點에서 나온 産業分類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하튼 大川教授는 Colin Clark의 産業分類에 따라서 國民所得과 就業人口의 長期的 趨勢를 分析하고 農業을 中心으로 하는 第1次産業의 比重이 經濟發展에 따라 低下하는 現象이 各國에 共通된 傾向이라는 것을 明白히 함으로써 이른바 Petty의 法則을 確認한다. 그리하여 그는 우선 農業은 그 生産物에 대한 需要의 成長率이 緩慢하다는 點에서 「相對的 縮少産業」이라고 規定한다.¹⁾ 한편 그는 生産의 側面에서 農業은 非農業에 比하여 勞動의 生産性이 낮은 産業이라는 것을 指摘하고 이와 같은 面에서도 農業의 相對的 衰退를 把握한다. 따라서 大川教授의 理論體系에 있어서는 農業의 相對的 衰退現象은 需要面에서는 國民經濟에 있어서의 農業의 比重低下의 現象으로서 生産面에서는 農業勞動生産性停滯의 現象으로서 把握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는 大川教授의 需要面分析을 먼저 檢討하고 뒤 이어 그의 生産面分析을 檢討하는 順序를 밟을가 한다.

大川教授는 우선 종래 여러 學者들에의해서 農業의 相對的 衰退의 有力한 根源으로 생각되었던 收穫遞減의 法則을 技術革新의 過程을 前提로 한 經濟의 長期動態의 局面에 관한 限 認定할 수 없다고 본다.

종래 여러 農業經濟學者들의 見解에 의하면 農業은 有機的 生産이며 土地의 役割이 生産에 있어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資本이나 勞動力의 増投에 따라 限界生産力의 遞減現象이 나타나지만 大部分 無機的 生産으로 된 製造業等 餘他産業部門에 있어서는 收穫遞減法則의 作用範圍가 매우 制限되어 있거나 겨우로 收穫遞增의 傾向이 支配하기 때문에 農業은 相對的으로 衰退하지 않을 수 없다고 說明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같은 見解는 A. Marshall 以來의 經濟學의 傳統이라고 해서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大川教授는 收穫遞減의 法則은 어디까지나 靜態的인 一定한 條件下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生産要因의 結合比率의 變化와 技術의 發展을 前提로 하는 長期動態의 世界에 있어서는 一般적으로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點을 論證하고 있다.²⁾ 長期動態의 世界에 있어서 收穫遞減의 傾向을 否定하는 이러한 見解는 T. W. Schultz에 의해서도 表明되고 있다. 즉 Schultz는 農業의 生産可能性을 美國의 農

註 1) 大川 一司, 農業의 經濟分析 第11章 參照

2) 大川 一司, 農業의 經濟分析 第9章 및 第15章 參照

業統計에 依據하여 여러가지 方面에서 分析한 끝에 다음과 같은 表를 揭示하고 있다. 이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勞動의 投入量指數는 1910을 100으로 하여 1950년에는 72로 低下된 反面에 土地는 131, 肥料・石灰는 388로 增大되고 있으며 특히 動力車輛의 使用은 278倍로 놀라운 增大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勞動節約的 投資의 進展에 의해서 農業投入總計는 114로 增大되었으나 한편 農業生産은 175로 더욱 크게 伸長하였다. 그리하여 Schultz는 「土地가 이미 制限的 要因은 아니라는 것은 長期的인 收穫遞減이 農業用地的 必然的 運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長期動態의 過程에 있어서는 收穫遞減의 法則이 作用하지 않는다는 것을 明白히 하고 있는 것이다.¹⁾

農業에 있어서의 生産投入量
(1910年 및 1950年)

	(1) 1910	(2) 1950	(3)指數 (2)/(1)×100
勞 動	107	77	72
利 子	128	168	131
土 地	83	109	131
雜 項 目	79	118	155
租 稅	56	98	175
固定資本修繕 및減價銷却	104	196	188
肥 料・石 灰	69	268	388
動力車輛使用	1	278	278 ^(倍)
投 入 總 計	95	108	114
農 業 生 産	79	138	175

農業에 있어서 收穫遞減의 法則의 作用이 農業의 相對的 衰退의 原因이 될 수 없다고 본 Schultz 및 大川教授는 農産物에 대한 需要的 所得彈力性의 低位야말로 農業의 相對的 衰退의 根本原因이라고 본다. 大川教授는 이 點에 關해서 다음과 같은 model을 展開하고 있다.²⁾

지금 外國貿易이 없는 封鎖體系를 假定하고 國民經濟의 成長率을 G , 非農業의 成長率을 G_1 , 農業의 成長率을 G_2 , 農業生産額의 總生産額에 대한 比重을 ω 로 表示하면

$$G = G_1(1-\omega) + G_2\omega \dots \dots \dots ①$$

가 成立된다.

한편 農産物에 대한 需要的 成長率 D 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은 長期動態

過程에 있어서는 主로 (1) 國民所得의 成長率 g (2) 農産物需要的 所得彈力性 η (3) 人口增加率 P 以上 세가지로 要約될 수 있으므로 다음의 式이 成立된다.

$$1+D = (1+\eta g)(1+p) = 1+\eta g + p + \eta p g$$

$$\therefore D = \eta g + p + \eta p g$$

여기서 η , g , p 는 모두 少數點 以下の 數値이므로 $\eta p g$ 는 微量이다. 따라서 이것을 無視하면

$$D = \eta g + p$$

그런데 外國貿易이 없는 封鎖體系를 전제로 할 경우 長期的으로는 $D = G_2$ 라고 보아 無妨할 것이다. 따라서

$$G_2 = \eta g + p \dots \dots \dots ②$$

한편 n 를 就業人口增加率이라고 하면

$$G = g + n \dots \dots \dots ③$$

③式에서 ②式을 빼기 하면

1) T. W. Schultz, Economic Organization, of Agriculture Chapter VII, 川野・馬場監譯 pp. 128-129

2) 大川一司, 農業의 經濟分析 第11章

$$G - G_2 = (g + n) - (\eta g + p) = g + n - \eta g - p$$

그런데 人口增加率 p 와 就業人口增加率 n 은 거의 同一하다는 假定이 그다지 無理 없게 成立할 수 있으므로 $n = p$ 에서

$$G - G_2 = g - \eta g = g(1 - \eta) \dots\dots\dots ④$$

여기서 ①式과 ④式을 聯結시키면

$$G - G_2 = G_1(1 - \omega) + G_2\omega - G_2 = g(1 - \eta)$$

이것을 展開하면

$$G_1 - G_1\omega + G_2\omega - G_2 = g(1 - \eta)$$

$$G_1 - (1 - \omega) - G_2(1 - \omega) = g(1 - \eta)$$

兩邊을 $1 - \omega$ 로 나누기 하면

$$\frac{G_1(1 - \omega)}{1 - \omega} - \frac{G_2(1 - \omega)}{1 - \omega} = \frac{g(1 - \eta)}{1 - \omega}$$

$$\therefore G_1 - G_2 = \frac{1 - \eta}{1 - \omega} g \dots\dots\dots ⑤$$

마지막으로 얻어진 ⑤式의 意味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아닌 $G_1 - G_2$ 의 性格 즉 그 正負를 決定하는 것은 바로 $\frac{1 - \eta}{1 - \omega}$ 가 正이나 負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量的으로 表示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g 는 一般的으로 언제나 + 이고 $1 - \omega$ 도 ω 의 性格上 당연히 + 이다. 따라서 $G_1 - G_2$ 가 + 나 -냐를 決定지우는 것은 오직 $1 - \eta$ 가 + 나 -냐에 의해서 左右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統計的 實證에 의해서 η 의 值 즉 農產物에 대한 需要의 所得彈性은 보통 매우 低位의 經濟發展段階를 경과한 대개의 文明國에 있어서는 1보다는 크지 않고 0보다는 크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그러므로 $1 - \eta$ 도 역시 + 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⑤式의 右邊 $\frac{1 - \eta}{1 - \omega} g$ 의 各構式部分 $1 - \eta$, $1 - \omega$, g 가 모두 + 라면 左邊 $G_1 - G_2$ 는 당연히 + 이며 $G_1 - G_2 > 0$ 이라는 不等式이 無理 없게 成立한다. 여기서 $G_1 > G_2$ 가 導出된다. 즉 非農業部門의 成長率は 農業部門의 成長率보다 크다는 結論이 나온다. 이상이 大川一司教授의 農業의 相對的 衰退에 관한 需要面分析의 大要이다.

III. 大川理論과 收穫遞減의 法則

Schultz나 大川教授가 長期動態의 世界에 있어서는 收穫遞減의 法則이 作用하지 않는다는 것을 論證하고 農業의 相對的 衰退의 根源이 이 法則에 의해서 說明될 수 없다고 본 것은 확실히 卓見이었다. 원래 收穫遞減의 法則은 A. Marshall, Principle of Economics 第4編 「生産要素論」에서 「土地의 耕作에 充用하는 資本・勞動의 增加는 農業技術의 改良이 同時에 이루어지지 않는 限 一般的으로 產出되는 生産物의 量을 比例以下로 增加시킨다」고 定義되었다. 1) 定義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點을 注目해야 할 것이다. 첫째로 이 定義가 土地의 量을 增加시키지 않고 資本과 勞動의 投入만을 增加시킨다는 前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의미의 收穫遞減의 現象은 何等 農業에만 特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둘 必要가 있다. 만일 非農業에 있어서도 特定한 生産手段을 固定해 놓고 資本이나 勞動만을 增加시키면 收穫이 遞減하는 것은 當然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土地에 대해서 唯

註 1) A. Marshall, Principles of Economics Book IV, Chapt. 2, p. 153.

獨이 點이 問題된 것은 첫째로 一定한 國民經濟가 利用할 수 있는 自然으로서의 土地가 制限되어 있다는 것, 둘째로 土地에 대한 資本・勞働의 結合關係가 伸縮의이고 固定性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現實적으로 一定한 土地面積위에 그것을 相當한 程度까지 増投할 수 있다는 것, 이상 두가지 事情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중에서 물론 後者는 農業의 特質의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前者는 非單 農業에 만 特有한 事情은 아니며 非農業에서도 볼 수 있는 現象인 것이다.

둘째로 農業技術의 改良이 이러나지 않는다는 限定이 붙어 있다는 點이다. 이 限定은 이 法則의 靜態의 性格을 表示하는 것이다. 그러나 *Ricardo, J. S. Mill*等 正統學派 또는 오늘 날의 여러 農業經濟學者들은 農業技術의 變革에도 不拘하고 長期에 관해서 보면 결국에 있어서 收穫遞減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靜態에 있어서나 動態에 있어서나 반드시 이 現象이 나타난다고 불만한 何等의 明確한 根據는 없는 것이다.

셋째로 收穫遞減의 法則은 그것이 어디 까지나 技術의 性格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點에 留意할 必要가 있다. 生産物은 物量에 의해서 計算되고 있으며 資本과 勞働의 分量도 이에 準한 一定한 單位를 가진다고 생각되고 있다. 따라서 *A. Marshall*의 定義의 內容은 農業試驗場에서 하는 肥料效果의 試驗結果가 나타내는 것과 同一한 性質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農業試驗에 있어서 收量과 投入肥料의 關係를 보면 收量曲線은 다른 條件이 同一한 상태 밑에서 收穫遞減의 傾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디까지나 技術의 性質의 것이라고 하겠으며, 이와 같은 點에서 *J. Schumpeter*와 같은 學者는 이러한 技術의 前提는 經濟學에 있어 不必要하다고 斷定하여 이 法則을 拒否하였다.¹⁾ 물론 이 法則을 拒否하지 않고 약간의 修正을 加해서 認定하는 사람도 있다. *Colin Clark*와 같은 사람은 이 技術의 命題를 費用의 法則이라는 一般의 命題에 包含시킴으로써 「生産物單位當平均實質費用이 生産高의 增加의 結果로서 增大하는 것이다」라고 定義하고 있는 것이다.²⁾ 이 定義에는 확실히 土地를 一定으로 한다는 前提는 除去되어 있으나 역시 組織 技術의 不變이라는 前提는 除去되어 있지 않다. 超歷史의 性格을 가진 技術의 法則 그나마도 土地를 一定으로 하고 勞働과 資本만을 一方的으로 增加시킨다는 非現實의 前提에 立脚하는 收穫遞減의 法則은 最近의 農業技術의 現實의 發展過程에 의해서 非現實性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Schultz*에 의해서도 指摘된바 있다. *Schultz* 및 大川教授가 이러한 歷史의 經驗에 의해서 收穫遞減의 法則을 否定하고 이 法則이 農業의 相對的 衰退의 根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立證하였다는 것은 確實히 하나의 貢獻이었다.

IV. 大川理論과 過少消費說

그러나 한편 이들이 農業의 相對的 衰退의 根源을 農産物에 대한 需要의 所得彈力性의 低位性에 求하고 있다는 點에 관하여서는 그 妥當性에 많은 疑心을 자아내게 한다.

앞서 보아 온 바와 같이 大川教授가 그의 model에 의해서 설명하려고 한 것은 결국 非農業의 成長率이 農業의 그것보다 큰 理由가 農産物需要의 所得彈力性이 낮기 때문에 農産物에 대한 有効需要가 다른 産業의 生産物에 대한 有効需要보다 적은 率로 增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有効需要는 國民所得에 의해서 購入되어 直接的 消費의 對象이 되는 家計의 需要外에

1) J. Schumpeter,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東畑, 中山譯, p. 203 ; Das Wesen und der Hauptinhalt der theoretischen Nationalökonomie, 木村, 安井譯 p. 364.

2) C. Clark, Conditions of Economic Progress, 2nd ed. p. 226.

도 企業의 再生産過程 및 資本蓄積過程에서 必然的으로 나타는 生産財에 대한 有効需要, 다시 말하자면 建物・機械・原材料・補助材料等の 購入등 직접적으로는 人間의 消費 對象이 아닌 物品에 대한 有効需要를 包含하고 있다는 點에 注目해야 한다. 이 가운데서 물론 前者 즉 直接的 消費對象에 대한 有効需要는 國民所得에 의해서 購入되어 消費의 對象이 되는 것이므로 이 部分은 확실히 *Schultz*, 大川教授等이 말하는 需要의 所得彈力性의 影響을 받지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國民의 直接的 消費對象이 아닌 企業의 生産의 消費에 의해서 나타나는 有効需要는 바로 그것이 國民所得의 支出에 의한 需要가 아니고 그러한 國民所得을 產出하기에 必要한 企業의 生産活動에 隨作되어 나타나는 別個의 需要라는 點에서 國民所得 그 自體와는 直接的인 關聯이 稀薄하고 따라서 需要의 所得彈力性의 作用을 설사 받는다 하더라도 間接的으로밖에 받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點을 보다 明確하게 理解하기 위해서는 *Marx*의 再生産表式과 *Keynes*의 有効需要의 理論을 吟味해 보는 것이 便利할 것 같다.

우선 *Marx*의 再生産表式은 單純再生産表式과 擴大再生産表式의 두가지로 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理論을 簡單化하기 위해서 單純再生産表式을 基準으로 한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Marx*의 再生産表式은 社會의 生産部門을 Ⅰ 生産財生産部門과 Ⅱ 消費財生産部門의 2部門으로 分割하여 各生産部門의 生産物 W 는 價値의 側面에서 不變資本 C , 可變費本 V , 剩餘價値 M 으로 構成된다. 지금 剩餘價値率을 100%, 資本의 有機的構成 $\frac{V}{C}$ 를 $\frac{1}{4}$ 이라고 假定하고 單純再生産의 條件을 붙이면 다음과 같은 再生産表式이 成立한다.

$$I \quad 4,000C + 1,000V + 1,000M = 6000W$$

$$II \quad 2,000C + 500V + 500M = 3,000W$$

이 表式에 있어서 Ⅰ部門의 C 는 Ⅰ部門의 資本家相互間의 去來에 의해서 解決되며 Ⅱ部門의 V, M 도 Ⅱ部門內部에서 解決된다. 그러나 Ⅰ部門의 V 와 M 은 生産財의 形態를 가지는 價値構成部門이므로 Ⅱ部門과의 交換에 의해서 解決될 수 밖에 없고 Ⅱ部門의 C 도 역시 消費財의 形態를 가지는 것이므로 Ⅰ部門과 交換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Ⅱ部門의 $V+M$ 와 Ⅱ部門의 C 는 서로 交換됨으로써 再生産의 問題가 解決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 再生産의 條件은 $IV+IM=IIC$ 다.

한편 國民所得은 $(IV+IM) + (IIV+IIM)$ 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것은 모두 第Ⅱ部門의 生産物과 交換되어 直接的 消費의 과정으로 드러간다. 그리고 $IC+IIC$ 는 資本의 單純再生産을 支障없이 持續하기에 필요한 生産財이며 이것은 모두 Ⅰ部門의 生産物總計에 의해서 補填된다.

$$\begin{aligned} \text{즉} \quad (IV+IM) + (IIV+IIM) &= IIW \\ IC+IIC &= IW \end{aligned}$$

그러므로 社會의 總生産物 $IW+IIW$ 는 (1) 國民所得 $(IV+IM) + (IIV+IIM)$ 에 의해서 購買되는 部分과 (2) 不變資本補填을 위해 資本家に 의해서 購買되는 部分 以上の 合計로써 構成되어 있다. 따라서 國民所得 $(IV+IM) + (IIV+IIM)$ 은 社會 總有効需要의 一部分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한 의미에서 農産物에 대한 需要의 彈力性 η 는 이 部分에만 關聯을 가질 뿐이며 資本家の 生産의 消費의 對象으로서의 $IC+IIC$ 에 대해서는 直接的인 關聯을 가지지 못하고 다만 $IIC=IV+IM$ 의 關係에 의해서 말하자면 극히 間接的으로 資本家の 生産의 消費需要의 一部에 대해서 影響을 미칠 뿐이다.

한편 Keynes의 有効需要의 理論에 있어도 企業에 의한 生産의 消費에서 나타나는 有効需要의 문제는 결코看過되어 있지 않다. 물론 Keynes의 理論은 Marx의 再生産表式에 있어서와는 달리 社會의 生産部門을 2部門으로 分割하지 않고 그것을 單一部門으로 取扱하고 있으며 分析의 中心概念인 國民所得概念은 모든 中間財의 去來를 一應 捨象한 純計概念이라는 點에 있어서 Marx 體系와의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Keynes에 있어서도 企業相互間의 去來로서 나타나는 生産의 消費의 문제가 그의 여러가지 概念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點에서도 明白하다.

첫째로 Keynes는 國民所得 Y 를 $A-U$ 라고 規定하였다. 여기서 A 는 「消費者에 대하여 또는 企業者相互間에 一定期間에 販賣된 生産物의 總賣上高」이며 U 는 使用者費用으로서 總生産物 A 를 生産하기 위하여 企業家가 犧牲한 價値額이다. 그러므로 U 는 企業家에 의한 生産의 消費에 該當하는 것이다.

한편 Keynes는 消費를 $A-A_1$ 이라고 規定하였다. 여기서 A_1 은 企業家가 다른 企業家로 부터 購入한 完成生産物을 表示하는 바 이것 역시 企業의 生産의 消費에 해당하는 것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Marx의 體系에 있어서나 Keynes의 體系에 있어서나 社會의 有効需要는 (1) 直接的消費로서 나타나는 國民所得 (Marx에 있어서는 $(IV+IM) + (IIV+IIM)$, Keynes에 있어서는 Y) (2) 企業에 의한 生産財의 生産의消費로서 나타나는 有効需要 (Marx에 있어서는 $IC+IIC$, Keynes에 있어서는 A_1 또는 U)로 나누어진다는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大川 model은 農産物에 대한 需要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을 國民所得, 需要의 所得彈力性 人口라는 세개의 要因에 局限시킴으로써 後者 즉 企業의 生産의 消費로서 나타나는 有効需要의 문제를看過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農業部門은 食糧生産을 爲主로 하는 産業部門이며 그것은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消費財産業으로서의 性格을 가진다. 그리고 만일 農業을 純粹한 消費財産業이라고 본다면 大川 model의 妥當性은 어느 정도까지 認定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消費財産業의 生産物은 $(IV+IM) + (IIV+IIM)$ 즉 國民所得에 의해서 購買될 것이므로 거기에 需要의 所得彈力性概念을 適用해도 그다지 無理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資本主義의 生産關係가 發展됨에 따라 農業生産에 있어서 非農業을 위한 加工用農産物生産의 比重이 無視하기 어려울 정도로 増大된 오늘날 農業을 純粹한 消費財生産部門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예컨대 小麥은 直接的으로 農家로부터 消費者의 食卓에 提供되는 것이 아니라 一旦 小麥粉製造業者와 製빵業者의 손을 거쳐서 提供되고 있으며, 오늘날 西歐農業에 있어서 거의 半의 比重을 차지하는 畜産業에 있어서도 그 生産物의 많은 部分이 食肉製造業者, 冷凍業者, 罐詰業者등 製造過程을 거쳐 市場에 供給되고 있음을 본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農業과 最終需要者の 中間에 서서 農産物을 加工 製造하는 過程은 農産物을 市場으로 가져가는 途中에 介在한 單純한 經過點 내지 中間項에 不過하므로 加工農産物에 대한 需要는 곧 原料農産物에 대한 需要와 같다고 볼 수 있다는 見解도 있을지 모른다. 다시 말하면 小麥에 대한 需要量의 多寡는 小麥粉의 價格變動을 통해서 小麥粉製造業者의 小麥에 대한 需要量을 變動시킬 것이므로 결국 그것은 小麥粉에 대한 需要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Keynes의 理論은 바로 이와같은 觀點에서 中間生産物의 企業間去來를 捨象하고 有効需要를 消費+貯蓄으로 把握한다. 그러나 中間生産物의 去來의 問題는 最近 近代經濟學의 分野에서도 이른바 投入 產出分析에

註 1) J. M. 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Chapter VI.

의해서 더욱 그 重要性이 強調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大川教授는 $Y=A-U$ 의 關係를 指摘하고 中間生産物에 대한 需要가 社會의 總需要가운데서 차지하는 重要性을 認識하면서도 U 를 「派生需要」라고 보고 이것을 捨象하려고 한다. 그의 見解에 의하면 所得率 Y/A 를 一定이라고 본다면 U 는 Y 에 의해서 間接으로 決定된다는 것이다.¹⁾

그러나 이와 같은 見解는 成立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Y 는 國民所得의 處分과 關係하고 U 는 그러한 國民所得의 生産을 뒷받침하는 企業의 生産活動과 關係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經濟的 意味는 根本적으로 큰 差異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U 는 派生需要로서 捨象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經濟理論體系에서 正當한 位置를 차지해야만 한다. 그와 같은 意味에서 $K. Marx$ 가 그의 再生産論에서 社會의 生産部門을 生産財生産部門과 消費財生産部門으로 分割함으로써 U 即 企業에 의한 生産의 消費의 問題를 그의 經濟學體系에서 明確하게 把握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數 많은 功績가운데서도 으뜸가는 것이라고 하여 過言은 아니다.

이점에 관해서 한가지 重要的 것을 附言한다면 그것은 大川 model이 一種의 過少消費說의 誤謬를 되풀이하고 있는 理論이 아닐가 하는 點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Sismondi*에 의해서 提唱되고 $K. Marx$ 에 의해서 徹저하게 批判된 過少消費說은 이 론바 $A. Smith$ 의 「 $V+M$ 의 dogma」를 繼承한 것으로서 生産의 消費를 看過하고 市場에 있어서 生産物價値가 實現되지 못하는 根本原因을 오로지 消費需要의 不足에 求하였던 것이다.²⁾ 그런데 大川教授는 *Sismondi*와 더불어 農産物需要에서 결코 적지않은 一環을 차지하는 製造業에 의한 農産物의 生産의 消費의 問題를 看過하고 그러한 그릇된 理論에 의해서 農業이 相對적으로 衰退하는 것은 農産物에 대한 需要의 所得彈力性이 낮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農業의 相對的 衰退의 原因을 需要의 所得彈力性에 求함으로써 農産物需要를 規定하는 要因을 오로지 國民所得($V+M$)에 局限하고 生産의 消費를 看過하여 이로써 $V+M$ 의 dogma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V+M$ 의 dogma의 再生은 大川教授의 祖述者 *T.W. Schultz*의 理論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問題는 결코 여기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國際적으로 널리 通用되고 있는 *Colin Clark*의 第1次, 第2次, 第3次의 産業分類方式이 各産業의 生産物에 대한 需要의 所得彈力性만을 基準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제까지의 考察을 통해서 이것 역시 $V+M$ 의 dogma에 立脚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問題는 이 小論에서는 더 이상 詳論할 餘裕가 없다. 여기서는 다만 問題의 所在만을 指摘해 둘 뿐이다.

그러나 여하튼 以上の 考察에 의해서 農業이 純全한 消費財生産部門이 아니라는 것은 明白하다. 그것은 直接的 消費의 對象物을 生産하는 限에 있어서는 消費財生産部門이지만 製造業에 대한 原料 즉 勞動對象을 生産하는 限에 있어서는 生産財生産部門인 것이다. 그리고 資本主義의 歷史的 發展過程에 비추어 보면 前資本主義의 自給自足經濟가 무너지고 漸次 市場經濟의 領域이 擴大되어 이른바 迂回生産의 利益에 따라서 社會의 生産部門이 廣汎하게 專門化됨에 따라 農業部門의 消費財産業의 性格은 차츰 減少하고 그 대신 生産財産業의 性格이 더욱 前面에 나타나게 되는 것은 하나의 必然的 傾向이기도 하다. 다만 農業의 生産財産業의 性格은 農業이 資本主義發展의 主導的 役割을 擔當하는 製造業에 있어서 가장 中心的 地位를 차지하는 「勞動手段」을 生産하는 産業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附隨的인 「勞動對象」의 生産만을 擔當하는

1) 大川 一司, 農業의 經濟分析 pp. 168-9

2) *K. Marx, Das Kapital, S. 343, SS. 347-8*

産業이라는 點에서 하나의 特殊한 性格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農業의 相對的 衰退의 또 하나의 重要的 原因을 形成하게 된다. 그러나 이 點에 관해서는 후에 자세히 考察하기로 한다.¹⁾

V. 大川理論의 批判的修正

大川教授의 理論 model이 위에서 말한 바와같은 몇가지 難點을 內包하고 있는 것은 이제야 明白한 것 같다. 그러나 그가 農業과 非農業의 相互關係를 하나의 簡潔한 理論 model로 要約함으로써 農業의 相對的 衰退의 理論을 樹立하려고 한 것은 確實히 하나의 理論的 功績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以下에서 大川 model의 手法을 利用하여 그가 그의 理論에서 看過하고 말았던 農產物의 生産的 消費의 問題를 그의 理論體系에 包攝시킴으로써 그것을 一步 前進시켜 보고자 한다.

우선 우리는 農產物需要의 또 하나의 構成部分 즉 生産的 消費部分의 增加率을 c 라고 表示한다. 그러면 大川 model에 따라서

$$G = G_1(1-\omega) + G_2\omega \dots\dots\dots ①'$$

$$D = G_2 = \eta g + p + c \dots\dots\dots ②'$$

$$G = g + n \dots\dots\dots ③'$$

$$G - G_2 = g - \eta g - c = g(1 - \eta - \frac{c}{g}) \dots\dots\dots ④'$$

$$(\text{但 } n = p)$$

$$G - G_2 = G_1(1-\omega) + G_2\omega - G_2 = G_1(1-\omega) - G_2(1-\omega) = g(1 - \eta - \frac{c}{g})$$

$$\therefore G_1 - G_2 = \frac{1 - (\eta + \frac{c}{g})}{1 - \omega} g \dots\dots\dots ⑤'$$

위와 같은 式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서 ⑤'의 右邊의 各構成分子 가운데 $1-\omega$ 는 +이고, g 도 +이므로 $G_1 - G_2$ 의 正・負關係는 $1 - (\eta + \frac{c}{g})$ 가 +인가 -인가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하자면

$G_1 - G_2 > 0$ 즉 $G_1 > G_2$ 는 農業의 相對的 衰退를 나타내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1 - (\eta + \frac{c}{g}) > 0$ 의 條件이 必要하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η 는 보통 1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eta + \frac{c}{g} < 1$ 가 成立하는가의 如否는 $\frac{c}{g}$ 의 値가 어떠한 値를 取하는가에 따라 다른 것이다. ⑤'式은 바로 이와 같은 內容을 表示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frac{c}{g}$ 는 바로 農產物의 生産的 消費의 增加率에 대한 一人當所得成長率의 比이다. 다시 말하면 農產物의 生産的 消費의 增大率이 크면 클 수록 g 가 一定하고 η 가 一定하다 하더라도 $G_1 - G_2$ 의 關係는 $G_1 > G_2$ 일 수도 있고 $G_1 = G_2$ 일 수도 있고 $G_1 < G_2$ 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더 말할것도 없이 G_1 과 G_2 의 關係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c 의 性格을 無視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問題는 c 가 經濟發展의 過程에서 어떠한 趨勢를 나타내는가 하는 點이다. 그런데 이 點에 관해서는 農產物需要 가운데 C 部門은 모두 勞動對象으로서의 原材料라고 말한 前段의

1) 本論文 V. 大川理論의 批判的 修正, 參照.

指摘을 想起할 必要가 있다. 즉 農業은 非農業을 위해서 여러가지 生産財를 生産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 까지나 勞動對象으로서의 原材料의 生産에 그치고 있으며 生産財産業의 主軸을 차지하는 勞動手段은 아니다. 그리고 農業에 있어서의 生産財生産이 가지는 위와 같은 特殊性이 資本의 有機的 構成高度化의 法則 및 生産財生産部門 優位の 法則과의 關聯에서 農業의 相對的衰退를 가져오는 매우 重要한 要因을 形成하게 되는 것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K. Marx는 資本의 蓄積이 進展됨에 따라 可變資本의 增加率보다 不變資本의 그것이 앞질러 發展하며 그로 말미암아 總資本 가운데서 不變資本이 占하는 比重이 增大한다는 法則을 提示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그의 擴大再生産表式分析에 있어서 生産手段生産部門이 消費財生産部門보다 앞질러서 發表한다는 法則의 基礎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資本主義的 發展의 이러한 法則性은 生産力의 發展에 있어서 특히 勞動手段의 役割이 더욱 크게 增大한다는 現實的 過程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經濟發展에 따라서 勞動手段에 대한 需要가 勞動對象에 比해서 훨씬 빠른 速度로 增大하는 것은 必然的이다. 더우기 勞動手段이나 勞動對象生産에 있어서 支配的 位置를 차지하는 것은 鑛工業을 비롯한 非農業이라는 것은 贅言을 요치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生産財需要總體에서 原料農產物이 차지하는 比重은 必然的으로 漸減하는 傾向을 나타내게 된다. 더구나 原料農產物 가운데 적지 않은 部分이 製造工業의 發展에 따라서 競爭의 代替品에 의하여 驅逐될 運命에 있다고 본다면 이러한 趨勢는 더욱 加速度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前記 ⑤'式에 있어서 1人當所得의 增加率 g 는 有名한 Harrod의 基本方程式 $gc=s$ 에 비추어 資本係數를 一定으로 할 경우 資本蓄積率과 거의 步調를 같이 한다고 보아 그다지 無理는 아닐 것이다. 萬一 이러한 假定이 許容된다면 $\frac{c}{g}$ 에 있어서 g 가 資本蓄積過程에서 더욱 큰 率로 增加하는 反面에 非農業部門의 原料農產物에 대한 需要的 增加率 c 가 g 에 훨씬 未達되는 傾向은 더욱 急速히 進展될 것은 必然的이다. 그리하여 η 와 더불어 $\frac{c}{g}$ 의 値도 더욱 적어진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서 $1-(\eta+\frac{c}{g})$ 는 대개의 경우 +일 것이다. 그렇다면 역시 $G_1-G_2>0$ 의 成立이 우리의 ⑤'式에 의해서도 保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原料農產物需要的 增加率 c 를 大川 model에 編入한다 하더라도 農業의 相對的衰退에 관한 結論에 있어서는 아무 變함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結論이 같다고 해서 model 그自體의 性格마저 같은 것은 아니다. 經濟理論에 있어서 model의 性格은 그것이 內包하는 理論的意味內容에서 分離하여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大川料授의 model은 農業의 相對的 衰退의 原因을 農產物需要的 所得彈力性이라는 一點에 몰아 넣고 있지만 여기서 改編된 우리의 model에 있어서는 그것이 한편에서는 需要的 所得彈力性이 낮다는 것과 또 한편에 있어서는 農產物의 生産의 消費의 增加率이 社會의 總體的인 生産의 消費에서 占하는 役割이 經濟發展에 따라 漸次的으로 낮아진다는 點에 걸쳐 있다는 것을 表示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點에서 大川 model과 여기서 展開된 筆者自身の model은 根本的으로 다르다는 것을 있어서는 안된다.

VI. 需要面分析과 生産面分析

우리는 이제까지 農業의 相對的 衰退에 관한 大川教授의 需要面分析을 批判的으로 檢討함으

註 1) R. F. Harrod, Towards a Dynamic Economics. Some Recent Developments of Economic Theory and their Application to Policy, London, 1958 p. 77.

로써 그 理論上의 여러가지 問題點을 指摘하고 더 나아가서는 大川教授의 手法을 利用하여 教授에 의해서 看過되었던 生産의 消費의 問題를 우리의 理論體系에 包攝함으로써 우리스스로의 model을 作成해 보았다. 그러나 大川教授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農業의 相對的 衰退의 問題를 農產物需要의 長期的 分化의 法則으로 부터 말하자면 需要의 觀點에서 分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편에 있어서는 農業의 生産性和 勞動所得이 어찌하여 非農業에 그것에 比하여 뒤떨어지지 않을 수 없는가를 물음으로써 말하자면 生産의 視點에서 農業의 相對的 衰退의 原因을 밝히려고 한다. 그리고 그는 그와 同一한 系統에 서있다고 생각되는 Schultz의 理論이 前者 즉 需要의 側面만을 重要視하고 經濟의 生産의 側面을 輕視하고 있다고 批判하면서 Schultz의 理論이 歐美諸國뿐만 아니라 아세아의 特質까지도 同時に 說明할 수 있는 理論이 되기 위해서는 그의 理論이 生産面分析에 의해서 補充되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¹⁾

事實 Schultz의 理論을 그대로 model化 한것이라고 볼 수 있는 前節의 大川 model은 農產物에 대한 需要의 長期的 分化의 法則으로 부터 農業의 相對的 衰退의 原因을 밝히려고 하였다. 그러나 農產物에 대한 需要는 그 自體 매우 無內容한 概念이다. 물론 需要는 어떠한 社會에 있어서나 生産의 前提이며 그 規定者이다. 그러므로 需要의 分析은 生産動向을 밝히는 하나의 方法이 될 수 있으며 그러한 意味에 있어서는 農業의 相對的 衰退의 原因을 需要面으로 부터 究明하는 方法도 어느 程度의 妥當性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는 하나 元來 需要라는 것은 그 自體 生産에서 分離되어 存在하는 것은 아니며 生産에 의하여 規定되며 創造되는 一面을 가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點에서는 J. B. Say가 말한 바와 같이 供給은 그 스스로의 需要를 創造하는 一面을 가진다. 왜냐하면 經濟의 發展은 무엇보다도 먼저 生産力發展을 의미하는데 生産力의 增進을 위해서는 또한 보다 많은 資本財와 보다 많은 勞動力의 投入를 必要로 하고 이것이 窮極의으로는 需要의 增大로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우기 一定한 需要量이라는 것도 그것이 하나의 明白한 經濟學的 意味內容을 가지는 것으로 把握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서 우선 그것이 나타나는 生産의 基盤이 究明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經濟分析의 視點을 需要面에만 限定시킨다면 經濟問題의 本質은 看過되기 쉬운 것이다.

우리의 當面課題인 農業의 相對的 衰退의 理論의 研究에 있어서도 需要面分析에 의한 接近方法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生産構造面의 分析에 의해서 그 內容이 補充되어야 할 것이다. 더우기 農業의 相對的 衰退現象은 非單 生産國民所得 가운데 農業所得의 比重이 減退한다던가 就業人口 가운데 農業就業人口의 比重이 減退한다던가 하는 點에서만 把握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보다 根本的으로는 農業의 生産性이 非農業의 그것에 比해서 언제나 뒤 떨어지지 않을 수 없다는 點에서 集約되는 現象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農業의 生産性이 어찌하여 非農業에 그것에 뒤떨어 지느냐에 관한 原因의 究明을 必要로 하는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Schultz에 의해서 것이 農產物에 대한 需要의 減退나 人口增加率等の 要因만으로는 究明되기 어려운 것이다. Schultz는 農業生産性의 相對的 衰退의 問題는 經濟成長의 結果라고 보면서 生産의 側面에서 나타나는 mechanism의 究明을 비교적 輕視하였다. 그러나 經濟成長의 分析은 生産面의 分析에 의해서 補充되어야 한다는 것은 뒤에서 말한바에 의해서도 거의 疑問의 餘地가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하여 大川教授는 需要面分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生産面分析을 試圖함으로써 農業의 相對的 衰退의 原因을 把握하려고 한다.²⁾ 그리고 그는 이것을 어디까지나 農業內部의 問題

註 1) 大川一司, 經濟의 動態分析 p. 144

2) 大川一司, 農業의 經濟分析, 第7章 參照

즉 within problem로 보지 않고 農業과 非農業의 相互關係의 問題 즉 between problem의 觀點에서 보려고 한다. 그리고 그는 最近 顯著하게 發展되기 시작한 巨視的 動態論의 分析道具 例컨대 資本係數 土地係數 勞動의 相對的 分配率, 農業部門의 就業人口比重 등을 驅使하여 農業의 勞動生産性이 어찌하여 非農業의 그것에 比하여 언제나 뒤떨어지며, 農業에 이른바 過剩就業이 어찌하여 支配하는가를 밝히려고 한다. 특히 그의 過剩就業의 概念은 「한 產業에 있어서의 勞動의 限界生産力이 他部門에 있어서의 勞動의 限界生産力에 비하여 恒常 低位에 있을 경우」라고 定義되어 있으며¹⁾이 概念은 從來의 여러學者들과는 다른 側面에서 農業의 이른바 潛在失業의 問題를 把握하려고 하며 이것은 매우 嶄新한 概念으로 學界의 注目を 끌고 있다. 그리고 그가 數量的 統計의 으로 推算할 수 있는 前記한 여러가지의 近代經濟學의 分析概念을 驅使하여 農業問題의 所在을 理論的으로 究明하려고 하는 學風을 樹立했다는 것도 그의 크나큰 功績의 하나이다. 여기서는 紙面의 制約으로 그의 理論을 상세하게 紹介할 餘裕는 없다. 다만 여기서는 그가 農業經濟學에 새로운 分析道具를 導入하고 이것으로서 農業問題의 所在을 理論化하는데 寄與했다는 것은 그의 크나큰 功績이며 특히 그가 Schultz의 理論을 一步前進시켜 農業의 生産面分析의 重要性을 強調하고 여기에 새로운 境地를 開拓했다는 것은 그의 非凡함을 깨닫게 하는 點이라는 것을 指摘하는데 그쳐둔다.

그러나 大川教授의 生産面에 관한 理論에도 몇가지 問題點을 指摘할 수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첫째로 그가 農業衰退의 生産面에 있어서의 原因을 단지 機能的 側面에서 數量的으로 確定할 수 있는 分野에서만 求하고 더 나아가서 現實의인 資本의 運動法則과 農業의 特殊한 生産條件이 어떻게 結付되어 있는가를 理論的으로 分析하는 것을 輕視乃至 無視하고 있다는 點이다. 그것은 그의 理論的 方法이 어디까지나 巨視的 機能的 分析에 置重하는 데서 오는 당연한 歸結이라고 하겠지만 農業의 相對的 衰退의 究明은 비단 그러한 機能的 分析만으로 完全하게 把握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機能的 分析에 視野를 局限한다면 後에 자세히 보는바와 같이 農業生産에 있어서의 自然條件의 制約과 資本制限(Capital rationing), 土地所有의 特殊한 役割 農業에 있어서의 資本主義의 發展의 停滯와 小農經濟의 支配, 獨占資本主義下의 農產物價格形成의 特殊性과 農業의 相對的 衰退와의 關係等 오늘날 農業問題를 生産面에서 規制하는 여러가지 要因들이 看過되거나 輕視되는 結果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 點과 關聯해서 둘째로 指摘할 수 있는 것은 大川教授의 理論이 지나치게 農業과 非農業과의 相互關係에 起因하는 農業問題의 局面을 強調한 나머지 이번에는 거꾸로 農業內部的 問題를 輕視乃至 看過하는 傾向에 빠지고 있다는 點이다. 農業問題는 물론 資本主義의 不均等成長의 過程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그것은 農業과 非農業의 相互關係의 側面에서 究明되어야한다는 見解는 지금히 妥當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從來의 農業理論이 Schultz가 말한바와 같이 農業內部的 問題 즉 within problem을 中心으로 하고 產業間의 問題 즉 between problem을 輕視하였다는 批判은 確實히 適切한 批判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within problem을 輕視해도 좋다고 본다면 이것 역시 잘못된 것이다. 물론 農業問題에는 農業과 非農業과의 相互關係의 側面에서가 아니면 根本的인 解決을 바랄 수 없는 問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農業內部에서 解決되어야 할 問題도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특히 土地所有와 地代 農業資本의 形成에 대한 資本主義의 制約條件等은 農業의 相對的 衰退에 대하여 매우 重要한 要因을 形成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以下에서 生産의 側面에서 農業의 相對的 衰退를 規定하는 諸要因을 보다

註 1) 大川一司, 農業의 經濟分析 第6章, p. 84.

자세히 살펴 봄으로써 *Schulth*理論 및 *大川*理論에 대한 하나의 批判의 錢을 열어 보려고한다

VII. 農業의 自然的 技術的 條件과 Capital Rationing

① 農業의 相對的 衰退를 가져오는 生産面의 要因으로서 첫째로 指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自然的 技術條件이다. 그러나 여기서 注意해야 할 것은 農業의 自然的 技術的 條件은 直接的으로 아무런 中間項도 없이 農業의 相對的 衰退의 原因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農業의 自然的 技術的 條件과 農業의 相對的 衰退의 中間에는 반드시 資本의 生産過程을 생각해야만 한다. 만일 이러한 中間項을 거치지 않고 農業의 自然的 技術的 性格을 農業의 相對的 衰退와 直接的으로 結付시킨다면 그것은 技術主義의 誤謬에 빠지는 結果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點에 留意하면서 農業의 自然的 技術的 特質을 살펴본다면 첫째로 農業은 土地表面의 反復的 規則的 利用에 의한 有機物의 生産이라는 것이 指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農業이 土地表面과 끊임없이 끊임을 수 없는 關係에 있고 그것이 또한 有機的 生産이라는 特質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資本의 生産過程과의 關聯下에서는 우선 勞動期間의 中斷을 不可避하게 함으로써 生産期間을 固定化하고 長期化하여 資本의 回轉을 硬化化하고 長期化하는 結果를 가져 오게 된다.

一般的으로 商品의 生産過程은 勞動期間과 그 中斷期間으로 構成되어 있다. 물론 勞動期間의 中斷은 農業에만 特殊한 것은 아니며 非農業에 있어서도 生産過程이 「持續的인 自然過程에 服從하고 物理的 化學的 生理學的 諸變化」를 必要로 할 경우에는 勞動過程이 中斷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非農業에 있어서는 生産方法을 發展시키므로써 勞動過程의 中斷을 短縮하거나 없애거나 하기가 매우 容易하다. 그리하여 非農業에 있어서는 勞動期間과 生産期間이 때때로 一致할 경우가 많다. 그것은 非農業에 있어서의 勞動期間이나 生産期間의 길이가 一般的으로 勞動對象의 本性이나 거기에 作用하는 自然諸力에 의해서 規制되는 것이 아니라 基本的으로는 社會的으로 自由로이 創出될 수 있는 資本과 그 生産方法에 의해서 主로 規制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科學技術이 發展되어 生産方法이 改革되면 生産期間이나 勞動期間이 顯著히 短縮된다는 것은 우리가 日常的으로 經驗에 의해서 알고 있는 事實이다. 더우기 「信用은 그것이 한 사람의 손으로 資本이 集積되는 것을 媒介하고 빨리하고 많게하는 限, 勞動期間에 따라서 回轉時間의 短縮에 貢獻하는 것이다.」

물론 農業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勞動期間의 短縮이 어느 정도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刈取機 脫穀機 耕耘機 등의 導入, 또는 品種改良이나 栽培飼育方法의 改良에 의해서 勞動期間의 短縮이 可能的인 것이다. 그러나 農業生産의 主要한 對象은 生命을 가진 有機物質의 生産일 뿐 아니라 그 生産物은 自然的 條件을 基礎로하는 固有 固定的 生育過程을 가지는 것이므로 설사 勞動期間이 短縮된다 하더라도 生産期間 乃至 資本의 回轉期間은 固定化 되지 않을 수 없다. 「보다 急速의 回轉이라는 表現은 穀物收穫에는 適用되지 않는다.」家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農業에 있어서는 그 生産期間이 作物 또는 家畜의 生育期間에 의해서 規定되고 있으므로 非農業과 같이 社會的으로 自由로이 創出될 수 있는 資本과 그 生産方法에 의해서 容易하게 短縮될 수 없는 것이다. 더우기 生産期間이 長期的이고 勞動期間이 生産期間의 一部에 지나지 않는 農業에 있어서는 年間을 通해서 流動資本의 投下所要量에 커다란 不均等を 이르지 않을 수 없으며 反面에 그 還流는 自然條件에 의해서 固定된 一定한 時期에 一舉에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事情으로 말미암아 農業에 있어서는 事業의 規模는 同一하다 하더라도 勞動期間이 連續的인 다른 事業들에 比해서 보다 많은 流動資本을 그나마 보다 長期間 固定的으로 投下해 두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固定資本의 경우에도 그것이 現實

의으로 機能하는 時間이 制限되어 있으므로 그 現實의 機能에 비해서 보다 많은 減價償却을 必要로 한다. 이와 같이 資本의 回轉期間이 長期일 뿐 아니라 固定的인 農業은 他產業部門에 비해서 相對的으로 不利한 資本主義의 經營部門으로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② 다음으로 指摘해야 할 것은 農業生産의 不安定性이다. 農業勞動의 斷續性和 生産期間의 固定的 長期的 性格은 農業生産을 매우 不安定한 生産部門으로 하는 것이다. 農業에 있어서는 生産物의 物理的 化學的 生理學的變化를 長期間에 걸쳐 自然에 依存하여 實現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自然的 條件이 生産物의 豐凶에 重大한 影響을 미친다. 風雨 氣溫等 諸般 自然條件은 生産量의 크기를 左右할 뿐 아니라 土地에 固定된 資本施設을 一舉에 大量的으로 破壞할 때도 있다. 한편 完成農作物 半完成農作物 또는 아직 完全히 生育되지 않은 家畜이나 木材業의 在庫 더 나아가서는 潛在的 生産資本으로서의 肥料나, 家畜의 먹이등의 在庫는 「그것을 잘 保存하기에 必要한 豫防策이 適當히 마련되지 않는 限, 多少나마 그 價値를 喪失할 경우가 있으며 及其也是 管理 그 自體의 缺如로 말미아마 그 經營을 위한 生産物在庫의 一部가 全的으로 破壞될 경우도 있다.」 그리하여 生産期間이 長期固定的이며 生産物이 自然條件에 크게 依存하는 農業에서는 凶作等에 의해서 圓滑한 資本蓄積이 阻害될 뿐 아니라 蓄積된 資本 그 自體마저 完全히 破壞될 持續的인 危險에 直面하고 있다. 그리하여 經營의 不安定과 停滯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③ 農業의 自然的 技術的 特質은 또한 協業과 分業의 發展을 制約함으로써 生産力의 發展을 停滯시키게 된다. 「協業」이란 말할것도 없이 多數의 勞動者가 同時에 같은 空間에서 같은 種類의 商品生産을 위하여 한 사람의 指揮 밑에서 勞動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社會的 分業과 經營內部的 分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分業」은 一連의 勞動過程이 한 사람의 勞動者에 의해서가 아니고 多數의 勞動者에 分割的으로 擔當되는 것을 말 한다.

協業과 分業의 發展이 얼마나 生産力을 크게 發展시키는가에 관해서는 구태여 A. Smith가 그의 國富論에서 提示한 바늘製造業의 例를 새삼스럽게 想起할 必要도 없이 明白한 바 있다. 특히 分業의 發展은 協業에 비해서 훨씬 크게 勞動의 生産力을 높인다. 그것은 첫째 個個의 勞動者의 勞動過程의 中斷이나 移動等の 不生産的 勞動消耗을 減少시킨다. 둘째로 그것은 複雜勞動이나 熟練勞動을 單純勞動으로 代置함으로써 勞動用具의 分化 特殊化 및 改良을 더욱 容易하게 한다. 셋째로 그것은 作業能率의 向上을 가져옴으로써 完成生産物의 生産에 必要한 勞動時間을 短縮하고 아울러 資本의 回轉을 빨리한다.

물론 農業에 있어서도 協業과 分業의 發展은 어느 程度까지 可能하다. 그러나 農業勞動이 季節的으로 制約되어 있으므로서 季節的 繁閑과 中斷을 피할 수 없고 勞動의 種類나 方法이 그때 그때 다르다는 것은 協業과 分業의 發展을 決定的으로 阻害한다. 특히 勞動手段의 大規模化와 特殊化에 의한 分業의 發展은 餘他產業部門에 비해서 크게 뒤떨어지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農業勞動이 動植物의 有機的 生物學的 生長法則에 從屬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必然的 結果인 것이다.

④ 위와 같은 關係는 특히 機械制生産이 資本主義의 支配時 生産形態로 된以後에는 農業部門의 相對的 衰退를 보다 決定的으로 推進하게 된다. 물론 農業에 있어서도 經濟發展의 過程에서 機械의 使用이 크게 増大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農業에 있어서의 機械使用은 工業에 비해서 많은 困難이 있으며 그 普及은 相對的으로 언제나 뒤떨어지게 된다. 그 理由는 첫째 農業機械 그 自體가 工業의 生産物이라는 點이다. 그리하여 農業에 있어서의 機械使用은 非農業에 있어서의 機械使用에 비해 本源的으로 뒤떨어지지 않을 수 없으며 前者는 언제나 後者の 主導下에서 말하자면 受動的으로 밖에 進行되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로 農業에 있어서의 分業發展의 停滯가 機械의 導入에 커다란 阻止의 要因으로 作用한다는 것은 앞서 말한바 있거니와 農業勞動은 動植物의 有機的 生産過程이 土地의 固定性和 結付되어 있기 때문에 甚한 移動性을 가진다. 그리하여 대개의 農業用機械는 移動性機械이다. 따라서 農業機械는 土地의 自然的 條件에 따라 그 使用이 때때로 不可能한 경우가 있으며 農業機械의 利用은 대개 土地條件의 高度의 整備를 前提로 한다. 그러나 地形이나 土質等의 自然的 土地條件은 資本에 의해서도 그다지 容易하게 改變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우기 후에 말하는 바와 같이 土地의 有限性和 土地所有에 의한 土地資本投下의 制限性等은 土地改良投資에 적지않은 障壁으로 作用한다. 그리하여 農業에 있어서의 機械使用은 大幅 制限되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이 非農業과의 生産性的 格差를 더욱 크게 하는 要因으로 作用하는 것이다.

셋째로 農業機械는 그 經濟的 效率性이 매우 낮다는 弱點이 있다. 그것은 農業의 生産期間이 動植物의 有機的 生長法則에 規定되어서 固定的일 뿐 아니라 勞動期間이 生産期間보다 크게 짧고 斷續의이므로 作業의 種類에 따라 使用하는 機械도 바꾸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事實 農業機械의 大部分은 年中을 통해서 극히 短期間 使用되지만 工業에 있어서는 年中 계속해서 使用된다. 그러므로 機械에 의한 勞動力의 節約은 農業보다는 工業에 있어서 顯著하게 크다. 더우기 農村의 賃金水準은 都市의 그것보다도 大概의 경우 훨씬 낮으며 따라서 機械로써 勞動力을 節約할 수 있는 餘地가 적다.

더 말할 것도 없이 資本主義의 經濟發展은 平均利潤以上の 超過利潤을 다른 競爭的 資本家에 앞 질러서 獲得하기 위하여 資本家相互間에 技術革新을 둘러싸고 熾烈한 競爭이 벌어짐으로써 促進되는 것이다. 그러나 農業에 있어서는 生産에 있어서의 技術革新이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여러가지의 自然的 技術制約으로 말미암아 그 可能性이 매우 狹少하다. 물론 技術革新이 農業에 있어서 不可能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農業은 自然物로서의 土地와 密接不可分の 關係를 가지는 產業部門이므로 生産期間이 길고 또 生産의 安定을 期할 수 없다. 더우기 農業에 있어서의 技術革新은 그 先行條件으로서 土地條件의 整備를 必要로 하며 그것은 性格上 多額의 資本投下를 必要로 한다. 그리하여 個別資本의 立場에서는 農業部門은 매우 魅力이 적은 產業部門으로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⑤ 위와 같은 事情은 農業資本의 形成이 언제나 非農業의 資本形成에 뒤 떨어지게 하는 要因으로 轉化한다. 더우기 農業生産의 不安定性은 農業에 있어서의 近代的 信用의 發展을 阻害함으로써 農業에 대한 資本流入은 더욱 어려워진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工業을 主幹으로 하는 資本主義生産은 產業革命에 의해서 一大躍進을 이룩했지만 重工業이나 鐵道等과 같이 勞動期間이 顯著하게 길고 規模가 큰 事業의 遂行이 完全히 資本主義的 生産領域에 드러오게 되는 것은 한편에서는 資本의 集積이 이미 매우 顯著해지고 또 한편에서는 信用制度의 發展이 資本家로 하여금 自己自身の 資本이 아니라 他人의 資本을 投下해서 利潤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좋은 環境이 造成되었을 때 비로소 可能하게 된다. 특히 이 경우에 資本主義的 生産의 發展에 있어서 커다란 役割을 擔當하는 것은 株式會社制度의 發展이다. 株式會社의 發展에 의해서 私的 資本이 會社資本의 形態로 止揚되었을 때 資本主義는 비로서 產業革命에 比肩되는 第2의 躍進을 이룩하는 것이다. 그러나 農業部門에서는 기껏해야 土地抵當을 主로 하는 信用制度의 發展이 나타날 뿐이다. 더우기 農業生産은 價格의 變動에 대해서 매우 非彈力的이다. 그러므로 景氣變動에 대한 農業의 耐抗力은 弱하고 이로 말미암아 安定的이며 持續的인 利潤獲得의 可能性이 稀薄하다. 農業生産은 이러한 性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近代的 株式會社制度의 對象으로 되기 어려운 것이다.

이와 같이 農業部門에 資本이 導入되기 어렵다는 現象을 가리켜 Schultz學派의 사람들은 資

本制限 Capital Rationing이라고 불리고 農業生産의 不確實性에서 오는 資本制限을 內的 資本制限 Internal Capital Rationing 그 以外的 要因에서 오는 資本制限을 外的 資本制限 External Capital Rationing 이라고 불렀다.¹⁾ 그리고 前者의 原因으로서 는 ㉔農業生産의 不安定性 ㉕農業物價格의 不安定을 들었고 後者의 原因으로서 는 ㉔農業의 安全競爭의 生産構造 ㉕固定資本의 公共性으로 말미암아 個別的 融資의 可能性이 稀薄하다는 것 ㉔資金의 長期的 固定性和 낮은 流動性等을 指摘하고 있다. 여하튼 農業에 있어서 이른바 資本制限의 現象이 支配한다는 것은 否定할 수 없는 것이다.

VIII. 土地所有와 農業資本

農業의 相對的 衰退를 가져오는 叙上の 여러가지 原因과 더불어 地代의 問題를 考慮하면 農業의 相對的 衰退의 理論의 必然性은 더욱 明白해 진다.

地代는 더 말할 것도 없이 差額地代와 絕對地代로 나누어 진다. 그리고 差額 地代는 土地의 肥沃度の 差異와 位置의 差異에서 形成되는 이른바 第一形態와 追加的 資本投下の 生産性의 差異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른바 第二形態로 나누어 진다. 그러나 差額地代는 어떠한 形態의 差額地代이건 그것이 모두 資本의 平均利潤을 超過하는 利潤部分이 土地私有的 制約으로 말미암아 資本의 剩餘價値으로 부터 扣除된 것이라는 點에서는 다르지 않다. 한편 絕對地代는 差額地代가 發生할 수 없는 最劣等地에 대해서도 土地의 所有者가 農業資本家에게 一定한 土地利用의 代價를 要求함으로 말미암아 發生하는 것이다. 그러나 最近 一部 學者들은 絕對地代도 一種의 差額地代로 볼 수 있다는 理論을 내세우고 있다.²⁾

이러한 理論의 妥當性이如否를 檢討하는 것은 이 小論의 範圍를 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詳論을 避하기로 하지만 地代의 存在가 어떠한 意味에서 農業의 相對的 衰退를 가져오는가에 관한 mechanism을 밝히려고 하는 우리의 當面課題에 비추어 보면 地代의 構成部分을 구태어 詳細하게 따질 必要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地代의 存在가 農業의 發展을 阻害하는 要因을 理解하려면 地代의 存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農業과 그 영향을 받지 않는 工業과를 比較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선 工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生産過程이 主로 無機的 生産에 依存하고 있으므로 生産手段으로서의 土地의 役割은 거의 無視해도 좋을 程度로 적다. 그러므로 工業에 있어서는 個別資本이 다른 個別資本보다 先進된 生産方法을 採擇하여 超過利潤을 獲得한다 하더라도 土地의 所有者는 그것을 地代로서 自己에게 支拂할 것을 要求할 根據는 없다. 따라서 여기에 있어서는 個別資本의 技術革新에 대한 아무런 制約도 없으며 個別資本 相互間에 技術革新을 위한 自由로운 競爭이 展開됨으로써 生産力은 急速히 發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土地의 耕作에 依存하는 農業에 있어서는 事情이 다르다. 土地는 그 自體 하나의 潛在的 生産力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資本과 같이 自由로이 增加시킬 수 없다. 그리고 典型的인 資本主義的 農業에서는 土地와 資本은 原則적으로 分離되어 있는 것이므로 農業資本家は 土地所有者에 대하여 平均利潤을 넘는 超過利潤을 地代로서 支拂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주어진 條件 밑에서도 어느 程度의 技術革新은 可能的한 것이며 그럼으로써 農業資本家は 地主에게 地代를 支拂하고서도 個別的 生産價格과 社會的 平均生産價格과의 差額을 超過利潤으로서 取得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써 그가 工業에 있어서와 같이 다른 劣勢資本을 驅逐하여 自己의 支配領域을 擴大할 可能性은 매우 稀薄하다. 왜냐하면 農業資本의 超過利潤은 早晚間 地代로 轉化될 뿐 아니라

註 1) T.W. Schultz, Economic Organization of Agriculture, pp. 102--110

2) 阪本楠彦著, 農業經濟概論 上 p. 144

競爭者의 排除를 위해서 農業資本家가 보다 넓은 土地를 確保하려고 할 때에는 그의 競爭者보다 높은 地代의 支拂을 土地所有者에게 提示함으로써 從來 競爭者에게 貸與된 土地를 剝奪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것은 결국 地代의 더 一層의 高騰만을 結果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農業에 있어서는 보다 많은 超過利潤獲得에 의한 競爭者의 排除는 매우 困難하며 그 결과로서 農業資本 相互間의 競爭은 地代의 存在을 말미암아 工業과 같이 熾烈하게 展開될 수 없게 되며 이로써 生産力發展의 可能性이 매우 制限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地代의 存在가 農業의 相對的 停滯를 가져오는 것은 위와 같은 點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土地의 改良을 阻害함으로써 農業生産力의 發展을 制約하는 것이다. 물론 農業資本家가 土地改良施設을 借地期間이 滿了됨에 따라 自由로이 移動할 수 있다면 農業資本家は 工業資本家和 마찬가지로 아무런 制限도 받음이 없이 土地를 改良하여 보다 많은 超過利潤을 獲得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土地改良施設은 長期的으로 또는 永久的으로 土地와 合體하여 借地期限滿了後에도 自由로이 撤去되기 어려운 性格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土地改良資本은 借地期限의 滿了와 더불어 土地所有者에게 無償으로 歸屬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土地所有者로 하여금 보다 많은 地代를 새로운 借地農業者에게 要求할 수 있는 口實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農業資本家は 長期的 效果를 가지는 土地改良은 되도록 避하게 되고 超過利潤의 獲得을 위하여 주로 掠奪의 農法에만 專念하는 傾向을 빚여내게 되며 이로써 農業의 生産性은 停滯를免치 못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矛盾은 借地契約期間이 投下된 土地改良資本의 完全한 回收를 可能케 할 程度로 充分히 길거나 農業者가 同時에 土地所有者일 경우 즉 自作農制下에서는 어느程度 解消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小作契約期限의 長期化和 自作農制度의 確立이 農業生産力發展을 위하여 強力히 要求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制度下에서도 土地改良에 대한 一定한 限界가 完全히 없어 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土地改良事業은 그 性格上 自己所有地의 範圍內에서 獨立的으로 施行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개는 여러 土地所有者의 所有地와 廣汎하고 密接한 關聯을 맺으면서 施行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土地改良事業이 大規模의 公共의 性格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特性을 가지는 까닭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巨大한 資本投下는 個別資本의 能力에서 벗어나는 뿐 아니라 事業對象地의 所有者 相互間의 利害對立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補助金의 支出等の 形態로서 國家의 援助없이 잘 進行되지 못하며 이것은 結果적으로 土地改良投資의 進展을 阻害하게 되는 것이다.

세째로 土地私有는 土地의 追加의 供給을 阻害함으로써 農業投資의 進展을 阻害한다. 土地所有의 存在는 未耕地에 대해서도 一種의 幻想의 地代를 絕代地代의 形態로서 成立시키게 된다. 더우기 土地價格은 經濟進歩에 따라서 더욱 高騰하는 趨勢를 나타내는데 土地의 所有者는 그와 같은 趨勢를 勘案하여 自己의 所有土地를 開墾하느니 보다 오히려 未墾地로 放置해두는 것을 有利하다고 判斷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土地所有는 이와 같이 土地의 追加의 供給을 阻害하는 要因을 形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土地에 대한 依存性이 거의 없는 工業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制約이 存在하지 않는다. 農業의 相對的 衰退의 原因은 이와 같은 면에서도 形成되는 것이다.

넷째로 土地所有의 存在는 農業의 經營擴大를 絶對적으로 制限하는 要因이 된다. 借地農業制下에서 土地所有가 農業資本의 形成에 대하여 하나의 制限을 이룬다는 것은 앞서指摘한 바와 같다. 그러나 土地所有의 存在가 農業의 資本形成에 대한 絶對的 制約條件으로 化하는 것은 小農經濟가 좀처럼 大規模의 資本主義的 經營으로 上昇하기 어렵다는 點에서 보다 明白하게 나타난다. 元來 土地는 그 自體 自然의 產物이며 勞動의 產物은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아무런

「價值」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價值가 自己增殖할 때 바로 그것을 「資本」이라고 規定할 수 있다면 土地는 價值를 가지지 않음으로서 資本도 아니다. 물론 土地改良에 資本이 投下되어 그것이 土地와 一體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現實의 地價에는 土地改良資本의 利子에 該當하는 部分的 資本還元額이 包含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部分은 地代의 資本還元에 의해서 나타나는 本來의 地價와는 理論上 區分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本來의 地價部分은 嚴密한 의미에 있어서 再生産可能한 資本은 아니며 그것은 말하자면 「擬制資本」 Fiktives Kapital에 不過한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小農經濟가 自己의 經營을 擴大하여 多少나마 資本主義的 經營方式을 自己經營內에 導入하려고 할때 土地에 「借入」에 의해서가 아니고 土地의 「購入」에 의해서 必要한 土地를 確保해야만 한다면 小農은 本來 資本으로서 機能하지 않는 土地에 대하여 莫大한 資金을 投下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새로 購入된 土地에서는 一定한 地代가 回收될 것이며 그것은 土地購入에 充當된 利子로서의 意味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土地購入에 投下하는 資本을 現實의 機能하는 生産資本으로 投入한다면 그는 그러한 資本投下로서 資本의 利子を 超過하는 一定한 利潤을 獲得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는 土地購入에 投下된 資金은 一種의 死藏된 資本이며 아무런 生産의 意義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더욱이 農業에 있어서는 土地購入에 莫大한 資金을 死藏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死藏된 資金을 必要로 하지 않는 工業에 比해서 훨씬 多額의 資金을 投下해야 만 工業과 比等한 水準의 利潤을 獲得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大規模經營에 알 맞는 土地가 손 쉽게 入手되는 것도 아니다. 土地所有者가 各地片마다 다르다는 것이 常例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小農은 보다 많은 土地를 購入하여 거기에 多少나마 資本主義的 大規模農業을 經營할 수 있는 能力이 생기더라도 차라리 그의 資金을 農業으로 부터 撤收하여 非農業에 投下하려는 傾向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過程에서 이른바 資本制限은 土地所有의 存在에 의하여 더욱 加重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IX. 農民層의 分解와 獨占資本

農業部門에 대한 資本流入이 위와 같이 二重・三重으로 制約되어 있다는 事實은 農業에 있어서의 資本主義的 發展을 制約하고 이로써 農民層 分解의 停滯를 가져오는 要因을 形成한다. 물론 非農業部門 특히 工業部門을 主軸으로 하는 資本主義的 發展은 農業에서도 資本主義的 發展을 刺戟할 것이며 그 過程에서 農民層은 必然의 分解될 運命에 있다. 그러나 農民層分解의 깊이와 넓이를 規定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非農業部門 특히 工業部門의 資本主義的 發展이다. 물론 英國에 있어서와 같이 非農業의 發展速度가 빠를 뿐 아니라 그것이 主로 資本主義的 manufacture의 發展을 始發點으로 하여 勞動集約的 技術의 基礎 위에서 發展될 때에는 勞動力에 대한 需要의 急激한 增大, 勞賃水準의 騰貴 都市의 發展 食糧 및 原料 農產物에 대한 需要의 增大 등을 通하여 農民層의 分解와 資本主義的 大農經營의 成立을 廣汎하게 그리고 急激히 進展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農業의 資本主義的 發展이 非農業에 比하여 언제나 뒤떨어지는 것은 變함이 없다. 하물며 勞動集約的 manufacture의 技術을 始發點으로 하지 않고 先進資本主義諸國에서 이미 發展된 機械制의 技術을 土臺로하여 産業革命의 過程을 뒤 늦게 밟지 않을 수 없었던 西獨・佛蘭西 日本等 諸國을 비롯하여 所謂 오늘 날 後進國으로 불리우는 여러나라에 있어서는 農業의 資本主義的 發展이 非農業에 비하여 더욱 더 뒤떨어지는 것은 當然한 일이다. 이러한 나라들에 있어서는 非農業의 勞動力吸收力이 弱하기 때문에 農業部門에 相對的 過剩人口가 滯留하는 傾向이 생기며 이것이 나아가서는 農業의 技術의

發展에 대한 刺戟을 減少시키는 要因으로 轉化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英國과 美國을 除外한 거의 모든 나라에 있어서 資本主義의 大農經營은 發展되기 어려웠고 農業은 非資本主義의 家族經營이 支配하는 農業으로 停滯하는 傾向을 나타내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農業에 半封建의 地主支配가 長期에 걸쳐 成立되어 있는 매우 後進된 나라에 있어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傾向이 있다.

그런데 農民層의 分解가 이와 같이 順調롭게 進展되지 못하고 一端 小農經濟가 農業의 支配의 生産形態로 남게 되면 이번에는 小農經濟에 있어서의 農產物價格形成의 特殊한 性格이 資本主義의 農業의 發展을 阻害하게 된다. 그것은 小農이 支配的인 社會에 있어서는 一般的으로 農產物의 價格이 資本主義의 生産의 前提條件이며 그 原動力이라고 할 수 있는 利潤 나아가서는 地代의 成立을 許容하지 않는 낮은 水準에서 決定되는 傾向을 가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分割地農民이 自己의 土地를 耕作하기 위하여 또는 土地를 耕作作用으로 買入하기 위해서는 正常的인 資本主義의 生産樣式의 경우와는 달리 土地生産物의 價格이 그에게 平均利潤을 더구나 地代의 形態로 固定된 이 平均利潤을 넘는 超過部分을 가져오기에 充分한 만큼 騰貴하는 것을 必要로하지 않는다. 그에게 絶對的 制限으로 나타나는 것은 本來의 費用을 控除한 後에 自己自身の 勞賃을 얻을 수 있다는 條件뿐이다.」 따라서 이 條件만 充足되면 그는 土地의 耕作을 拋棄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農產物價格은 本來의 費用(資本費用)+最低生産活 작 費用價格의 水準을 下限으로 하여 決定되며 이것을 超過하는 利潤이나 地代가 成立할 수 있는 餘地를 남겨 두지 않는다. 그리고 이와 같이 利潤이나 資本主義의 地代가 成立할 餘地가 없다면 資本主義의 農業經營이 成立할 餘地도 없으며 農業은 어디까지나 小農이 支配하는 產業으로 停滯하는 傾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傾向은 물론 資本主義가 急速度로 發展하고 있었던 產業資本主義段階에서는 經濟成長의 速度如何에 따라 農產物價格이 利潤 또는 資本主義의 地代의 成立을 어느 程度 許容하는 段階에 까지 이를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며 이 過程에서 어느 程度의 資本主義의 農業의 發展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資本主義가 더 一層 發展하여 獨占段階에 이르면 農產物價格은 獨占資本의 收奪로 말미암아 좀처럼 費用價格以上の 水準으로 上昇하지 못하게 되며 農業의 相對的 衰退는 더욱 明白한 傾向으로 나타나게 된다. 元來 非農業은 土地의 制約을 받지 않는 產業이므로 大規模經濟의 原理에 따라서 資本의 集中 集積에 의하여 小企業이 統合되어 少數의 大企業이 市場을 獨占 乃至 寡占하기 쉬운 것이다. 적어도 이들은 生産物價格을 다만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自己들의 供給량을 調節함으로써 價格에 影響을 미칠 수가 있다. 또한 商品의 品質, 販賣條件의 差異, 廣告宣傳等에 의해서 自己들의 生産物에 特殊한 選好를 가진 需要者를 確保하여 다른 競爭者를 排除할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市場의 獨占의 支配力에 의해서 이들이 必要로하는 原材料의 購入에 있어서 그 價格을 그 最低水準으로 떨어 뜨릴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多數의 小農에 의해서 營爲되는 農業에 있어서는 그 生産物의 價格은 完全競爭價格으로서의 性格을 가진다. 그리하여 農業은 주어진 條件 밑에서 最大限의 利潤을 追求하려는 獨占資本의 獨占價格形成에 의해서 더욱 採算이 맞지 않게 된다. 한편에서는 農業用資材의 價格騰貴, 다른 한편에서는 獨占資本의 農產物價格引下에 의해서 農業이 더욱 壓迫을 받기 때문이다. 더우기 獨占資本에 의한 植民地經營과 低廉한 農產物의 輸入은 國內農業의 犧牲 밑에서 進行된다. 그리하여 獨占資本主義에 있어서는 農產物價格은 利潤의 成立을 許容하지 않는 最低水準보다 더 낮은 水準까지 下落하는 傾向마저 들어난다. 물론 이와 같이 農產物價格이 不利하게 되면 農民은 農業을 버리고 非農業에 移動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이른바 長期沈滯의 段階에 접어

들고 있을 뿐 아니라 勞動節約의 技術의 高度의 發展에 의해서 資本의 有機的構成이 極度로 高度화된 獨占資本主義는 沒落한 農民들을 非農業部門에 吸收할 能力을 喪失하고 있다. 1) 그리하여 獨占資本主義는 自己의 體制를 繼續 維持하기 위하여 어느 程度의 小農保護政策을 採擇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편 小農도 역시 非農業에서 알맞는 就業機會가 保障되지 않는 限 生活의 安全을 위해서 더욱 農業에 執着한다. 그리하여 農業에는 數 많은 潛在的 産業 豫備軍이 滯留함으로써 機械化의 進展을 包含하는 農業의 資本主義的 發展은 더욱 더 困難하게 된다. 더욱이 農民들은 農產物價格이 自己들에게 不利하게 되면 될 수록 그 損失을 補充하기 위하여 오히려 보다 많은 生産物을 生産하려고 하는 性向을 나타낸다. 그리하여 農業의 漫性的 不況은 더욱 더 長期化하고 固疾化한다. 農業의 相對的 衰退는 그 絕對的 衰退로까지 發展한다. 이 點에 있어서 獨占資本主義體制가 農業의 發展에 대하여 가지는 否定的 役割을 看過하는 것은 事物의 本質的 動向을 忘却하는 것이라는 批評을 免치 못하는 것이다.

註 1) 技術的 進歩가 반드시 勞動節約的인 것은 아니라는 有力한 見解가 있다. J. Schumpeter는 「거의 어떠한 새로운 技術過程도 勞動과 資本을 동시에 節約한다고 主張해도 眞理에서 그다지 벗어난 것은 아니다.」고 말한다.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1942; 東畑中山譯「資本主義・社會主義・民主主義」p. 210) 또 J. Robinson도 技術的進歩의 性質이 資本의 有機的 構成을 高度化한다는 見解에 反對한다. (The Rate of Interest and Other Essays, 1952; 大川, 梅村譯「利子率その他諸研究」p. 53) 이러한 見解들은 現實的인 資本主義의 發展過程 特別 後進國의 그것에 비추어 보아 아마도 妥當하지 못한 것이다.